

해방 전 한국에 소개된 종말론 문헌 고찰: 장로교 선교사들의 저서와 번역서를 중심으로

안수강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교회사)

- I. 들어가는 말
- II. 구미(歐美) 종말론 관련 문헌들
- III. 중국인 저술 종말론 관련 문헌들
- IV. 나가는 말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해방 전 한국에 전래된 장로교 선교사들의 저서와 번역서를 중심으로 한국에 소개된 종말론 문헌들을 고찰하려는 데 있다. 연구자는 종말론 문헌들에 나타난 중요한 사상들과 논점들을 다음과 같이 숙고하여 정리했다. 첫째, W. E. 블랙스톤, J. H. 브룩스, W. L. 스왈런, W. M. 베어드, W. B. 도슨 등 구미(歐美) 저자들의 종말론 관련 저술들을 선정하여 요한계시록의 핵심주제, 천년왕국 직전에 전개되는 역사, 천년왕국론에 관한 관점, 최후심판과 영원세계, 독특한 논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종말론에 관한 다양한 논지들을 고찰했다. 둘째, 이지명(李志明), 왕좌화(王佐華), 정의화(丁義華), 가옥명(賈玉銘) 등 중국인 저자들의 종말론 관련 저술들을 선정하여 전술한 내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의 목적, 천년왕국 직전에 전개되는 역사, 천년왕국론에 관한 관점, 최후심판과 영원세계, 독특한 논점 등을 살펴봄으로써 종말론에 관한 다양한 논지들을 고찰했다. 셋째, 본고에서 천착한 논지들에 근거하여 현세와 내세의 일원적 통합 노력, 소명의식,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윤리, 철저한 성경적 종말론 교육 등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계도하기 위한 실천적 교훈을 제시했다. 부언하여 연구자는 본고를 토대로 향후 일제강점기 교단별 종말론, 한국 목회자들의 종말론, 종말론 토착화, 삼계관(三界觀), 시대적 배경과 목시사상, 천년왕국론 비교분석 등 종말사상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로 외연(外延)할 것을 제안한다.

키워드: 종말론, 장로교 선교사, 요한계시록,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그리스도인의 삶

논문투고일 2022.07.22. / 심사완료일 2022.08.22. / 게재확정일 2022.09.07.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전 한국기독교의 종말사상 형성에 초석을 놓은 장로교 선교사들의 주요 저서와 번역서를 취사 선정하여 총괄 분석함으로써 한국장로교에 소개된 종말론의 동향을 고찰할 것이며 현재적 함의를 제언하고자 한다. 내용상으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주제, 천년왕국 직전에 전개되는 역사, 천년왕국론에 관한 관점, 최후심판과 이후의 영원세계, 독특한 논점 등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볼 것이다. 해방 전 한국기독교에 종말사상이 고조된 배경에는 한민족의 시대적 암울한 정황과 질곡이 반영되어 있다. 나채운은 한민족의 고난과 종교성의 상관관계를 논함에 있어 “饑寒冷에 發道心”이라는 논리를 취하여 일제강점기에 종말론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했다.¹ 유동식은 “한국문화와 신학사상”에서 일제강점기 목시문학적 종말사상은 역사적 위기에서 수난의 역사를 극복한 동인이 되었다고 피력했으며 그 대표적인 교역자로 길선주(吉善宙)를 들었다.² 당시 종말론은 천년왕국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고대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일부 역사적 전천년설 혹은 무천년설을 소개하는 문헌도 전래되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휴거, 공중혼인연식, 칠년대환난, 지상재림 등의 관점에 의해 분변할 수 있다. 최후심판 이후의 영원세계는 대체로 천국과 지옥 두 처소가 주류임에도 제3의 장소가 개입된 독특한 삼계론(三界論)도 등장한다. 해방 전에 홍중숙(洪鍾肅), 길선주, 김정현(金正賢), 김상준(金相濬), 이명직(李明植) 등 한국인 교역자들도 종말론 저작들을 발표했으며 내용상으로는 선교사들의 저서와 번역서를 답습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토착화하거나 재해석함으로써 시의성 있게 독창성을 가미했다.

해방 전 한국에 소개된 종말론 관련 선교사들의 저서와 번역서 가운데 최초로

* 이 논문은 본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증보한 것이다. 안수강, “길선주의 말세론 연구,”(서울: 백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177-216.

1 나채운, “우리 민족의 심층적 의식구조에 관한 한 고찰”,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서울: 기독교문화사, 1991), 166-68.

2 유동식, “한국문화와 신학사상”, 강원용 편, 『한국신학의 뿌리』(서울: 문학예술사, 1985), 267-68.

발행된 문헌은 1913년 4월에 빛을 본 『예수의 지림』(Jesus is Coming)³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블랙스톤(W. E. Blackstone, 1908)의 저서로, 출판된 지 불과 5년 만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게일(J. S. Gale)이 한국어로 완역하여 출간했다. 동년 7월에는 한국인 최초의 저술인 『黙示錄釋義』⁴가 감리교의 홍중숙에 의해 발표되었고, 역시 동년 10월에는 저자 미상의 중국인 저작이 『묵시록 주석』⁵이라는 서명으로 민준호(閔濬鎬)에 의해 번역 출판되었다. 이 저작들이 간행된 1913년은 한일합방이 단행된 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었고 일제의 무단통치가 심화되는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신세계를 열망하며 민족적 아픔과 고뇌를 해소하고자 했던 묵시적 정서가 깊이 작용하던 시기였다. 안식교에서도 1914년 선교사 샤펜버그(Mimi Sarfenberg)가 번역한 『묵시록히석』⁶을 출판하여 종말론 관련 저서들의 초기 행보에 가세했다. 삼일독립운동 발발 1년 전인 1918년에는 게일이 중국인 이지명(李志明)의 글 “그리스도 再臨과 現代信徒”⁷를 번역하여 『聖經雜誌』에 게재했고, 중국인 왕좌화(王佐華)의 “黙示錄研究”⁸를 역시 같은 『聖經雜誌』에 연재했다. 성결교를 개척한 김상준은 같은 해 『黙示錄講義』⁹를 펴냈으며 중국인 정의화(丁義華)의 “主再臨時에 聖徒의 先站得救論”¹⁰과 “예수의 再臨과 教會의 關係”¹¹ 등 두 편도 게일의 노력으로 번역되어 『聖經雜誌』에 게재되었다. 『神學指南』에 연재되었던 그의 “黙示錄의 大概”¹² 역시 게일의 번역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종말론 문헌들로서 중국인들의 저작들이 유입되어 출판되었는데 게일이 한서(漢書) 용어와 문장표현에 친숙했던 한국인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중국에서

3 W. E. Blackstone, *Jesus is Coming*, J. S. Gale 역, 『예수의 지림』(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13), 1-267. 블랙스톤의 *Jesus is coming*은 1908년에 시카고의 Fleming H. Revell Company에서 발행되었다. 박용규, 『韓國長老敎思想史』(서울: 충신대학출판부, 1999), 254.

4 홍중숙, 『黙示錄釋義』(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13), 1-113.

5 『묵시록주석』, 민준호 역(京城: 東洋書院, 1913), 1-183. 저자 미상.

6 이만열, 『韓國基督教文化運動史』(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325.

7 이지명,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 『聖經雜誌』 제1권 6호(1918), 6-9.

8 왕좌화, “黙示錄研究”, 『聖經雜誌』 제1권 1호(1918)로부터 제2권 4호(1919)까지.

9 김상준, 『黙示錄講義』(平壤: 基督書院, 1918), 1-287.

10 정의화, “主再臨時에 聖徒의 先站得救論”, 『聖經雜誌』 제3권 6호(1920), 18-22.

11 정의화, “예수의 再臨과 教會의 關係”, 『聖經雜誌』 제4권 2호(1921), 1-8.

12 정의화, “黙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제1권 3호(1918)부터 제2권 3호(1919)까지 연재.

문헌들을 입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삼일운동 이후에도 종말론 관련 저서들이 꾸준히 발표되어 특히 1922년 한해만 해도 감리교 하디(R. A. Hardie)의 『默示錄論文』¹³, 장로교의 베어드(W. M. Baird)가 번역한 브룩스(J. H. Brooks)의 『주지림론』(Till He Come)¹⁴, 클락(C. A. Clark), 밀러(E. H. Miller), 데밍(C. S. Deming)이 공역한 『묵시록주석』¹⁵, 스왈런(W. L. Swallen)의 『묵시록공부』¹⁶ 등 수준 높은 역작들이 일거에 쏟아져 나왔다. 이후에도 장로교에서는 베어드의 “주의 지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¹⁷, 길선주의 말세운동을 답습한 김정현의 저서 『末世論』¹⁸, 정재면(鄭載冕)이 번역한 중국인 가옥명(賈玉銘)의 『來末世論』¹⁹, 고든(H. J. Gordon)이 번역한 도슨(W. B. Dawson)의 『오는 소망』(The Hope of the Future)²⁰, 『信仰生活』에 연재된 길선주의 “末世學”, 스왈런의 『계시록대요』 등이 출간되었다. 감리교에서는 하디의 “묵시록강의”²¹, 성결교에서는 이명직의 “審判” 등 여러 편의 연재물들²², 안식교에서는 이시화(李時和)가 번역한 『默示錄研究綱目』²³과 뎡거린(T. S. Wangerin)의 『默示錄研究』²⁴ 등이 출판되어 종말론 관련 저서들 혹은 번역서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었다. 이상, 해방 전 소개된 종말론 관련 문헌들과 관련하여 발표 시기, 선교사들과 한국인 저자들, 교파별 관심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몇 가지의 의미 있는 시사점들

13 R. A. Hardie, “默示錄論文”, 『神學世界』 제7권 2호(1922)부터 제7권 6호(1922)까지 연재.

14 J. H. Brooks, *Till He Come*, W. M. Baird 역, 『주지림론』(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1-215.

15 『묵시록주석』 C. A. Clark 외 2인 공역(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1503-78. 이 역서는 실제 1913년 민준호가 번역하여 출판한 저자 미상의 『묵시록주석』과 같은 책이다.

16 W. L. Swallen, 『묵시록공부』(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1-167. 스왈런은 이 책을 수정증보하여 1936년에 『계시록대요』로 출판했다. W. L. Swallen, 『계시록대요』(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36), 1-180.

17 W. M. Baird, “주의 지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 『神學指南』 제8권 1호(1926), 70-74.

18 김정현, 『末世論』(京城: 彰文社, 1928), 1-99; 김정현, 『末世論』(京城: 講臺社, 1935), 1-96.

19 가옥명, 『來末世論』, 鄭載冕 역, 『來末世論』(平壤: 長老會神學校, 1931), 1-103.

20 W. B. Dawson, *The Hope of the Future*, H. J. Gordon 역, 『오는 소망』(京城: 耶蘇教長老會總會教育部, 1934), 1-64.

21 R. A. Hardie, “묵시록강의”, 『神學世界』 제9권 1호(1924)부터 2호(1924)까지 연재.

22 “審判”, “그리스도께서 來臨하심”, “携學”, “空中의 婚宴”, “大患難時代”, “顯現”, “千年時代” 등의 글들이 『活泉』 1925년 제47호부터 제52호까지 연재되었다.

23 『默示錄研究綱目』, 李時和 역(平原: 義明學校神學科, 1930), 147-323. 저자 미상.

24 T. S. Wangerin, 『默示錄研究』(京城: 時兆社, 1933), 1-245.

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시기적으로 일제치하에서 민족적 아픔이 고조되던 한일합방 직후와 삼일운동을 전후하여 많은 종말론 관련 문헌들이 소개되었다는 점이다. 이후에도 종말론 관련 저작들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전 조선총독부의 문서검열과 탄압이 가열되기 전까지도 꾸준히 명맥을 이었다. 이는 단순히 신학수준 고양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치하의 고통스런 시대적 정황에서 정서적으로 종말론에 대한 묵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종말론 관련 문헌들이 빛을 본 초기 10년 어간에는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의 저서들과 번역서들이 주류였지만 1920년대 초반부터는 차츰 국내 목회자들의 저작들도 눈에 띈다. 비록 전래된 종말사상을 학적으로 답습하여 토착화를 시도함으로써 원론적인 윤곽을 설정한 수준이었지만 한국 신학계에서도 상당히 종말론 분야에서 학적 체계를 갖추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종말론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은 문헌을 발표한 교파는 단연 장로교였다. 감리교, 성결교, 안식교에서도 저서들과 번역서들이 간헐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실제 장로교파에 속한 인사들이 종말론을 주도했을 정도로 191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거의 매년 신학적 수준을 갖춘 글들이 발표되었다(표 1] ‘해방 전 종말론 관련 교파별 선교사들의 저서들과 번역서들’을 참고할 것). 초기에는 한국문학과 어학에 조예가 깊었던 게일의 번역작업이 활발했고 이후에는 스왈런, 베어드, 고든 등 장로교 선교사들이 꾸준히 저서 혹은 번역서를 출간했으며 한국인 목회자들 중에서는 길선주, 김정현 등의 저서가 주목을 받았다.

해방 전에 소개된 종말론 관련 주요 저서들과 번역서들을 교파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에 있는 내용 가운데 관련교파를 분류한 원칙으로서 국내에서 저작된 문헌들은 저자가 속한 교파에 근거했다. 그리고 번역서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번역했고 한국에서 임혀진 문헌들이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 번역한 선교사들의 소속교파에 준했다. 트윙(E. W. Thwing)의 『쥬필재림』과 게일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박용규의 설명을²⁵, 사

25 박용규, 『韓國長老教思想史』, 255-56.

펜버그 번역의 『묵시록히석』²⁶과 해리슨(Norman Harrison)의 『확실한 재림』²⁷은 이만열의 설명을 참고했다. 다음 표에서 이탤릭체 이름은 중국인 저자, 밑줄 처리된 이름은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를 가리킨다.

[표 1] 해방 전 종말론 관련 교파별 선교사들의 저서들과 번역서들

연도	저자(역자)	문헌	관련교파
1913	W. E. Blackstone(J. S. Gale)	『예수의 직림』	장로교
	?(閔潛鎬)	『묵시록주석』	-
1914	?(M. Scharfenberg)	『묵시록히석』	안식교
1918	李志珉(J. S. Gale)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	장로교
	王佐華(J. S. Gale)	“默示錄研究”(연재)	장로교
1918-9	丁義華(J. S. Gale일 가능성)	“默示錄의 大概”(연재)	장로교
1920	丁義華(J. S. Gale)	“主再臨時에 聖徒의 先站得救論”	장로교
1921	丁義華(J. S. Gale)	“예수의 再臨과 教會의 關係”	장로교
1922	R. A. Hardie	“默示錄論文”(연재)	감리교
	J. H. Brooks(W. M. Baird)	『주지림론』	장로교
	?(C. A. Clark 외 2인 공역)	『묵시록주석』	장로교
	W. L. Swallen	『묵시록공부』	장로교
	E. W. Thwing	『주필재림』	-
1924	R. A. Hardie	“묵시록강의”(연재)	감리교
1926	W. M. Baird	“주의 직림에 디흐 성경의 교훈”	장로교
1930	J. S. Gale	『그리스도의 재림』	장로교
1930	?(李時和)	『默示錄研究綱目』	안식교
1931	賈玉鏞(鄭載冕)	『來世論』	장로교
1932	N. Harrison(白南奭, H. J. Gordon)	『확실한 재림』	장로교
1933	T. S. Wangerin	『默示錄研究』	안식교
1934	W. B. Dawson(H. J. Gordon)	『오는 소망』	장로교
1936	W. L. Swallen	『계시록대요』	장로교

지금까지 해방 전 종말론에 관한 연구로서 선교사들의 저서와 번역서들을 총괄적으로 분석한 사례는 없으며 큰 틀에서 전체적인 동향이나 일부 문헌들만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정도이다. 2000년 들어 해방 전 종말론을 연구한 논문들

26 이만열, 『韓國基督教文化運動史』, 325.

27 이만열, “韓國基督教의 末世意識과 千年王國思想”, 哲學宗教研究室研究部 編, 『現代 韓國宗教의 歷史 理解』(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238.

을 발표된 순서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박응규는 “일제하 한국교회의 종말론 형성에 관한 연구”(2000)에서 종말론적 유형들을 외향화(독립운동과 민족운동), 내세화/타계화(독립운동 실패와 부흥사들의 메시지), 내향화(종말론과 신비주의) 등으로 세분했다. 안수강은 『길선주의 말세론 연구』(2006)에서 길선주의 말세학과 제(誥) 신학에 내재된 말세론, 이원론을 극복한 동인으로서의 민족개량 정신을 섭렵했고 허호익은 “길선주 목사의 ‘말세학’의 한국신학적 특징”(2007)에서 길선주의 말세학이 관철한 독창성, 천지인의 조화, 지구영존과 무궁세계, 희망의 신학 등의 관점들을 제시했다. 오지원은 “김교신의 종말론 연구”(2018)를 통해 김교신의 내세적 신앙과 현실적 삶의 일치, 직업윤리, 지상과 천상의 신앙적 이원론 극복에 초점을 두어 고찰했다. 이상웅은 “해방 이전 한국 장로교 목사들의 종말론”(2021)을 통해 해방 전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길선주, 주기철, 손양원, 주남선, 박형룡, 박윤선 등의 종말론을 거시적인 틀에서 살폈다. 다른 논문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종말론 전통”(2021)에서는 장로회신학교의 종말론 전통이 선교사들마다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랐던 것으로 파악했다.²⁸ 선행연구들 중 모펫(S. A. Moffette), 게일, 베어드, 스왈런, 레이놀즈(W. D. Reynolds) 등의 종말론을 연구한 이상웅의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종말론 전통”은 본 연구에서 고찰하려는 주제와 상통한다.

II. 구미(歐美) 종말론 관련 문헌들

장로교에서 소개한 구미 종말론 관련 주요문헌들 중에서는 출간된 순서에 따라 블랙스톤의 『예수의 지림』(1913), 『묵시록주석』(1922), 브룩스의 『쥬지

28 박응규, “일제하 한국교회의 종말론 형성에 관한 연구”, 『역사신학논총』 제2집(2000), 176-98; 안수강, 『길선주의 말세론 연구』(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375;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말세학’의 한국신학적 특징”, 『신학과 문화』 제16집(2007), 297-323; 오지원, “김교신의 종말론 연구”, 『역사신학논총』 제32집(2018), 35-76; 이상웅, “해방 이전 한국 장로교 목사들의 종말론”, 『조직신학』 제37권(2021), 94-122; 이상웅,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종말론 전통”, 『한국 개혁신학』 제70권(2021), 218-64.

립론』(1922), 스왈런의 『묵시록공부』(1922)와 『계시록대요』(1936), 베어드의 “주의 직림에 의한 성경의 교훈”(1926), 도슨의 『오는 소망』(1934) 등을 취사 선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블랙스톤의 『예수의 직림』(1913, 게일 역)

장로교 선교사 게일에 의해 번역 소개된 블랙스톤의 『예수의 직림』은 1913년 4월 조선야소교서회에서 출판되었다. 이 저서는 한국에 최초로 소개된 종말론 관련 문헌이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보편적으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랐고 이 저서가 당시 한국인 신자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접할 수 있는 문헌형태로 보급되었다는 점에서 종말론 교육의 새로운 전기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블랙스톤의 『예수의 직림』을 시발점으로 이후 다른 종말론 관련 저서들 혹은 번역서들이 꾸준히 맥을 이어 발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문헌은 대중적으로 종말사상을 보급한 시효의 위치를 점한다. 번역본 『예수의 직림』은 본문만 해도 무려 267쪽에 이를 정도로 초기에 보급된 문헌으로서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이 저서의 특징적인 내용이라면 무엇보다도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의 논자들을 상호 대조하여 후천년설의 병폐를 상술하고 전천년설의 당위성을 견고하게 구축했다는 점이다. 블랙스톤은 후천년설에 대해 천년 기간 내에는 재림이 없으며 주께서 더디 오실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을 해치는 해로운 사상이라고 비판했다.²⁹ 이 번역서의 서문을 쓴 이창직(李昌植)³⁰ 역시 블랙스톤과 견해를 같이 하여 후천년설은 신자들의 행위의 아름다움과 열심과 사랑을 파괴하는 병폐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천년설의 필연성을 강변했다.

주의 직림을 의문하는 자 중에도 두 파가 있스니 하나는 천년전파[세대주의

29 W. E. Blackstone, 『예수의 직림』, 50.

30 이창직은 해주 출신의 가난한 선비였으며 J. S. Gale의 여학선생이었다. 그는 성경번역, 『천로역정』 번역을 비롯한 기독교문서 번역 저술에 참여했고 게일을 도와 『한영자전』을 편찬하기도 했다. 리진호, 『한국성서 백년사 I』(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301.

전천년설-연구자 주] 요 하나흔 천년후파[후천년설-연구자 주]라 천년전파의 말은 일천년 태평시디 전에 주씨셔 직림하시리라 하며 스도의 교훈을 직혀 일씩여 기도하며 성결한 직음으로 전도에 진력하는 자요 천년후파의 말은 일천년 태평시디 후에 주씨셔 직림하시리니 미리 일씩여 주의 직림만 근절히 기다림이 었지 혼갓 슈고를 허비함이 아니리오 (중략) 여러 교인들이 이 말[후천년설자들의 말-연구자 주]을 올케 녀여 좃차간 후로는 그 형위도 아름답지 못하고 전에 있던 열심도 업서지고 처음에 었었던[었었던-연구자 주] 스량도 일허 버렸도다³¹

블랙스톤은 이 저서의 첫 장에 “주의 직림”을 별도로 편성하여 “당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권하노니 그리하면 여러분이 사죄하기를 얻고 (중략) 그리스도 씨셔 하늘노 강림하시실거슬 기다리며 지내다가 그 직림하시실 때에 흠도 업고 직망도 업는[책망도 받지 않는-연구자 주] 교인이 되기를 바라노라”³²라고 권면했으며 재림을 고대하는 신자들이 현세에서 실천해야 할 성결한 삶의 본분을 피력했다.

이 저서의 제8장, ‘영접함을 닮음과 밋 형상을 나타내심’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개하는 서정(序程)과 더불어 초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교육한 일들로부터 영원무궁한 세대가 도래하기까지 일어날 일들이 설명되어 있다. 이 서정에 나타난 중요한 맥락을 짚어보면 주의 공중재림, 의인의 부활, 성도의 휴거, 혼인잔치, 세상에 임하는 환난, 주의 지상재림, 순교한 신자들의 부활, 천년왕국, 심판의 부활, 영원무궁 세대 등이 순차적으로 전개되어 있어 전형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취하고 있다.

- (오) 주씨셔 직림하시 그 신부를 밋으실 것
- (미) 의인의 부활이요 살아잇는 신자의 변화할 것
- (신) 성도가 그름 속에서 주를 영접하기를 에눅과 궤치 할 것
- (유) 신부가 공중에서 주를 밋날 것 우리가 주 계신 곳에 흠피 모힐 것 어린양의 혼인잔치[공중혼인연식-연구자 주] 우리가 주로 더브러 영원히 궤치 잇슬

31 이창직, “주의 직림서”, W. E. Blackstone, 『예수의 직림』, 1-2(‘서문’).

32 W. E. Blackstone, 『예수의 직림』, 3. 저서에 기록된 성경의 장절은 본 연구자가 생략함.

- 것 (중략) 교회가 이 가치 어려운 환난을 피하야 버셔남이라
 (술) 전무후무한 환난이 세상에 림홀지니 (중략)
 (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로 더브러 나타나셔 불꽃 가운데서 강림하시
 자우에서[땅 위에서-연구자 주] 심판을 행하시리니 (중략)
 (을) 환난 가운데서 주를 밋고 세상을 썬난 사람이 부활하시니 테 일츠
 부활이오
 (병) -천년 태평시대는 그리스도 영광의 주께서 -천년 동안 세상에 오셔서
 신부들노 더브러 함씩[함께-연구자 주] 권세를 잡으실 일이오 (중략)
 (무) 심판의 부활 (중략)
 (경) 영원무궁한 세대가 림홀 일이라³³

세대와 관련해서는 “륙천 년 전 아담이 오늘까지 살아잇서서”³⁴라 하여 이미 진행된 인류의 과거사를 만(滿) 6천년으로 보았고 ‘력티도’(歷代圖)에 인류역사를 ‘무죄세대’(無罪世代), ‘자유세대’(自由世代), ‘홍슈 후 통할 세대’, ‘선민귀거세대’(選民寄居世代), ‘률법세대’(律法世代), ‘오묘세대’(奧妙世代), ‘-천년 현현시대’(顯現世代) 등으로 세분화하여 총 일곱 세대로 대별했다. 주목할 만한 점으로서 저서의 마지막 22장에 ‘그리스도가 속히 림홀실 징조를 의론히’에서 재림의 징조를 모두 일곱 가지로 정리했는데 ‘썰니 든니는(빨리 다니는) 지식이 성행함’(성행함), ‘위험한 날’(온역, 기근, 광풍, 虛無黨, 反逆黨, 均富黨, 전쟁 등), ‘초혼술’(招魂術, 영혼을 불러들이는 복술), ‘밋음을 비판하는 일’, ‘복음이 세계에 전파됨’, ‘부자가 만함’, ‘이스라엘’(이스라엘의 건재함) 등을 들었다.³⁵ 재림의 한 징조로 제시된 균부당이란 공산주의 사상을 가리킨다. 블랙스톤은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에 대해서는 강림하실 날짜와 때는 알 수 없다고 했다.³⁶

2. 『묵시록주석』(1922, 클락 밀러·데밍 공역)

33 W. E. Blackstone, 『예수의 직림』, 56-60. cf. 237-38.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등 천간(天干) 순으로 번호를 매겼음. 저서에 기록된 성경의 장절은 본 연구자가 생략함.

34 W. E. Blackstone, 『예수의 직림』, 257.

35 W. E. Blackstone, 『예수의 직림』, 249-67.

36 W. E. Blackstone, 『예수의 직림』, 2.

중국인 저작 『묵시록주석』은 클락, 밀러, 데밍 등 세 사람이 공역하여 『묵시록주석』이라는 서명으로 1922년에 조선야소교서회에서 출판되었으며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이 저서는 세대주의 천천년설을 거부하고 ‘무천년설’을 지향한 매우 독특한 문헌이다. 그런데 이 저서는 1913년 10월 민준호가 이미 『묵시록주석』이라는 서명으로 번역하여 자신이 설립한 동양서원(東洋書院)에서 발행했던 것으로 약간의 손질을 거쳐 1922년에 조선야소교서회(朝鮮耶蘇敎書會)에서 재판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두 종의 『묵시록주석』을 일일이 대조해본 결과 동일한 번역서인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차이점이라면, 민준호가 번역한 『묵시록주석』에는 성경본문을 먼저 소개한 후에 계속해서 매 장절을 주석했지만 클락, 밀러, 데밍 등이 공역한 『묵시록주석』에는 성경본문은 별도로 소개되지 않은 채 매 장절이 주석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맞춤법이 좀 더 정교하다는 점만이 다를 뿐이다. 본 절에서는 1913년도에 처음 출간된 민준호의 역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저서는 당시의 세대주의 천천년설과는 달리 무천년설의 입장을 취한 저서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당시 천년왕국론 논쟁에 비추어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라면, 저자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에 이르기까지 전체 내용을 장절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석했지만 너무 단조로운 해석으로 일관하여 미래사의 맥락을 체계적으로 통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저서에는 세대주의 천천년설자들이 주장하는 공중재림과 휴거, 지상의 칠년 대환난, 공중혼인연식 등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서정이 ‘환란-주의 재림-신천신지의 도래’ 순으로 전개되어 있어 전체적인 윤곽은 무천년설의 틀을 갖추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된,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감금되는 장면도 ‘예수께서 강림하시 마귀의 권세를 폐하신지라 여귀 니르러는 텃스[천사-연구자 주]를 보내여[우더항열쇠]를 잡아 잡가시니[잡그시니-연구자 주] 이는 하느님께서 마귀에게 디흐야 지극히 공의로오시니라’³⁷라고 기술했을 뿐 천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천년왕국을 묘사한 요한계시

37 민준호 역, 『묵시록주석』, 164.

록 20장 4절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라는 구절도 진실한 성도가 천상의 영광을 얻을 것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의미 정도로 간결하게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무천년설의 입장을 취했다.

이 말씀[요한계시록 20:4-6-연구자 주] 주의 신도가(그리스도로 더브러 왕 노릇) 하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스니 첫째는 진실한 신도가 하늘 우에 영광을蒙져 엿음이고 둘째는 진실한 신도가 무리의 부활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더브러 영화를 흠의 누림이라³⁸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기록된 신천신지에 대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는 빛나고 새로워 처음 창조한 텃디[천지-연구자 주]와 크게 서로 다른지라 더 텃디와 바다는 업서집이라(벧후三〇十三)”³⁹라고 기술하여 당시 다른 저서들에 보편적으로 기술된 지구 개조설과는 달리 교체설을 천명하여 독창적인 견해를 개진했다.

3. 브룩스의 『쥬지림론』(1922, 베어드 역)

『쥬지림론』은 1922년에 조선야소교서회에서 출판되었다. 이 저서를 번역하여 소개한 베어드는 번역서의 서문 격에 해당되는 “쥬지림론서”(主再臨論序)에서 저자인 브룩스에 대해 “미국 교회 학자 중 성경을 깊이 공부하여 선히 해석하는 선칭[선하게 해석하는 선생-연구자 주]”이며 “쥬지림하시는 리치에 더하여 더욱 분명히 말하니라”⁴⁰라고 높게 평가하여 재림론을 성경적으로 연구한 신학자라고 소개했다.

브룩스는 저서의 첫 장 ‘직강림[재림-연구자 주]에 더한 스도의 교훈’에서 재림의 의의가 만물의 회복에 있다고 설파했다. 총괄갱신(總括更新)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

38 민준호 역, 『묵시록주석』, 165.

39 민준호 역, 『묵시록주석』, 170.

40 W. M. Baird, “쥬지림론서”, J. H. Brooks, 『쥬지림론』, 1(‘서문’).

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의 ‘통일’(ὁμοκαθελαλωσις)이라고 기술했고, 이 문구는 후일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 of Lyons, 2-3C)가 “이단논박”(“Against Heresies”)을 통해 깊이 있게 설파한 총괄갱신교리⁴¹의 단초가 된다. 브룩스가 『주지립론』에서 진술한 만물 회복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 기록된 ‘통일’로서의 총괄갱신교리와 같은 맥락이다.

만물을 회복하기 시작하실 때에 반드시 하늘이 예수를 도로 주리니(재림을
의미함-연구자 주) 이것이 세상 처음부터 선지자들도 하신 신령한 묵시의
대지(大旨)가 되었느니라⁴²

브룩스는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유기적 연계성에 주목하여 ‘주의 지립하심이 홀노 하나되는 소망’⁴³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바라는 신자들의 소망이야말로 다른 모든 소망을 다 포함한다고 자부했으며 주의 재림과 천년왕국이 곧 신자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지고(至高)의 소망이라고 피력했다.⁴⁴

브룩스는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으로부터 영원세계의 도래에 이르기까지 전개되는 전 기간의 역사를 공중에서 백성들을 모으심, 첫째부활, 참 교회를 데려가심, 지상에서의 첫 삼년 반과 마지막 삼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활동, 적그리스도의 무저갱 감금, 천년왕국, 적그리스도의 석방과 유희불 심판, 영생세계의 도래 순서로 전개하여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입각했다.⁴⁵ 그런데 주지할 점은 무엇보다도 그의 세대론이다. 그의 세대론은 해방 전에 보편적으로 성행했던 전천년설과는 완연하게 결이 다르며 그 현저한 차이는 세대론을 언약신학 관점에서 전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세대를 하나님과 사람이 상관된 역사를

41 이레니우스의 총괄갱신교리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볼 것. Irenaeus, “Against Heresies”, *Early Christian Fathers*, trans and ed., Cyril C. Richards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3), 389-91. “Against Heresies”, V, 19-21.

42 J. H. Brooks, 『주지립론』, 5-6.

43 J. H. Brooks, 『주지립론』, 136.

44 J. H. Brooks, 『주지립론』, 16.

45 J. H. Brooks, 『주지립론』, 195-202.

무죄시대, 양심시대, 족장시대, 율법시대, 주의 인신 사역시대, 은혜시대, 천년 시대 등 총 일곱 세대로 구분하고 모든 세대가 ‘인간의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규정하여⁴⁶ 스코필드(Cyrus I. Scofield)의 사상을 따른 고전적 세대주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통적인 언약신학과는 거리를 두었다.⁴⁷ 한 걸음 더 나아가 브룩스는 모든 시대가 사람의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세대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은혜시대 역시 세상 끝은 평화롭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했으며 이 논지에 근거하여 추후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낙관하는 후천년 설자들을 비판했다. 브룩스는 비록 교회가 자유와 지혜와 도덕성을 갖추어 천년 세계를 이루더라도 그리스도가 부재하신다면 이는 거짓 천년세계일 뿐이라고 단언했으며, 오히려 말세는 후천년설자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봉기하고 거짓선지자들과 악한 세력들이 성행할 것이라고 보았다.

만일 교회가 세력을 펴서 학원을 설립하여 그리스도교의 문명의 능력을 가지고 인류로 하여금 자유와 지혜와 도덕을 일층 더하게 할지라도 언더한 천년 세계가 되겠는도 슬프다 거짓 천년세계가 될 뿐이라⁴⁸

만일 현금 그리스도 직립하시기 전에 정의가 득세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二十四장에 기록한 九十七절이나 되는 긴 말씀 가운데서도 주께서 이에 더하여 말씀하신 바가 업슴이 과연 이상하도다 그러나 주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 세에 여러 사람이 나를 슬허하여 싫어하여 연구자 주 서로 잡아 주고 서로 위워할 것이오 거짓 선지자가 만히 니러나 여러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오 악한 것이 성함으로 만흔 사람의 소량이 점점 식으되 (중략) 턴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모든 백성에게 증거한 후에 쫓이 니르리라」⁴⁹

46 J. H. Brooks, 『주지림론』, 137-55.

47 스코필드의 고전적 세대론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Cyrus I. Scofield, *The Scofield Bible Correspondence Course*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07), 21.

48 J. H. Brooks, 『주지림론』, 47-48.

49 J. H. Brooks, 『주지림론』, 55. cf. 53.

브룩스는 저서의 말미에 “파슈군이며 밤이 어는 쟤나 되엇느냐”라는 별도의 부록편을 첨부하여 세상이 점차 호전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후천년설을 배경할 일곱 가지의 근거들을 제시했다. 그는 시의성 있는 일곱 가지 근거들로서 불신자들의 성행, 죄와 마귀세력의 흥왕, 죄의 총계표, 노동자들의 파업행위, 전쟁과 공산주의에 관한 뉴스거리들, 신자들을 유혹하는 거짓선지자들의 활동, 점차 증가하는 음주소비량 등을 제시했다.⁵⁰

브룩스의 주장들 중에 독특한 내용이라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들이 교황과 천주교의 사적(史蹟)을 지목하여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응했다고 단정하지만 이를 오류라고 일축한 점이다. 그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와 비슷하긴 하지만 이 세상 끝에 적그리스도가 형체를 이루어 사단의 권세로 이적을 행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교황과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주장했다.⁵¹ 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기는 했지만 주께서 승천하실 때 그 곁에서 재림하실 것을 전하던 두 사람, 변화산에서의 모세와 엘리야, 주의 무덤에 있던 두 사람,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때 나타날 두 증인이 모두 동일한 인물들일 수도 있다고 본 점도 독특하다.⁵²

4. 스왈런의 『묵시록공부』(1922)와 『계시록대요』(1936)

스왈런은 1922년에 『묵시록공부』를, 한국에서 선교사역을 마감하기 3년 전인 1936년에는 『계시록대요』를 발표했다. 두 권 모두 조선야소교회에서 출판되었다. 『계시록대요』는 『묵시록공부』의 내용을 수정·증보하고 단어들도 문맥에 적합하도록 고쳐 한층 완성도를 높인 저작이다. 두 저서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22장에 이르기까지 장절을 순차적으로 해석한 주석서의 형식을 갖추었으며 주제별로 모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총론”에서 요한계시록의 저자, 기록한 시기, 계시를 받은 장소, 기록한 이유 등을 논한 후에 제1편에는

50 J. H. Brooks, 『주지림론』, 206-13.

51 J. H. Brooks, 『주지림론』, 66-67, 78, 81.

52 J. H. Brooks, 『주지림론』, 2-3.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중에서 봄’(요한계시록 1장), 제2편에는 ‘닐곱교회에게 기록해야 붓친 편지’(요한계시록 2-3장), 제3편에는 ‘예언적으로 된 닐곱 가지 본 것’(요한계시록 4-22장) 등을 정리했다. 또 매 편마다 큰 주제와 여러 하위 단위의 소주제들이 편성되어 있다. 특이한 점으로서 매 편 주석을 마친 후에는 이와 관련된 적절한 질문항목들을 수록함으로써 학습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복습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스왈런은 천년왕국론을 전개함에 있어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지상에서의 칠년대환난기, 공중혼인연식을 논하여 세대주의 전천년설의 입장을 취했다. 저서의 초반부에서 ‘모든 백성’을 논할 때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유대인, 이방인, 교회로 삼분함으로써 세대주의의 구분 방식을 채택했다.⁵³ 그에 의하면 주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교회 즉 신자들은 첫째 부활의 부활체로서⁵⁴ 공중에서 주님의 영접을 받는 영광을 누릴 것이며⁵⁵ 이 시기는 첫째 인을 떼기 전 즉 지상에 환난이 임하기 전에 해당된다.⁵⁶ 승천한 신자들은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어⁵⁷ 영화로운 혼인연식에 참여하며⁵⁸ 지상에 임하는 칠년대환난을 면할 수 있다.⁵⁹ 대환난기가 종료되면 예수님은 지상에 재림하여 아마겟돈에서 전쟁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고⁶⁰ 적그리스도를 무저항(無底坑, 무저갱)에 가둠과 동시에⁶¹ 지상에 천년왕국을 이루어 신자들로 하여금 천년동안 왕 노릇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⁶² 그가 주장한 내용들 중 각별히 개혁신학에서 성찰해야 할 두 가지의 논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 처소로서 조상림보(limbus patrum)를 주장한다는 점이다. 스왈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신 후 그 영이 음부에 내려가셔서 구약시대에

53 W. L. Swallen, 『묵시록공부』, 3, 24(『계시록대요』, 6, 22, 29.).

54 W. L. Swallen, 『묵시록공부』, 139(『계시록대요』, 152.).

55 W. L. Swallen, 『묵시록공부』, 8, 43-44, 62(『계시록대요』, 11, 50-51, 70.).

56 W. L. Swallen, 『계시록대요』, 63.

57 W. L. Swallen, 『묵시록공부』, 62(『계시록대요』, 70.).

58 W. L. Swallen, 『묵시록공부』, 127-28(『계시록대요』, 141.).

59 W. L. Swallen, 『묵시록공부』, 37(『계시록대요』, 42.).

60 W. L. Swallen, 『묵시록공부』, 64-65(『계시록대요』, 73.).

61 W. L. Swallen, 『묵시록공부』, 135-36(『계시록대요』, 149.).

62 W. L. Swallen, 『묵시록공부』, 97(『계시록대요』, 108.).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 주장하여 조상립보를 인정했다.

음부이나 디옥은 성경에 사롬이 죽은 후에 신이 갈 곳으로 가라쳤는데 예수 오시기 전에는 음부에 두 방이 있어서 하나는 밋는 사롬이 가고 하나는 악한 사롬의 신이 간다 하였는데 그 밋는 사롬의 신이 가는 곳은 락원이라 하고 혹은 아부라함에 품이라고도 하였으니 이는 평안한 곳이라(누가十六〇十九-二十一) 악한 사롬의 신이 가는 곳은 괴로운 곳이라 이 두 스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릭하지 못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락원이라 하는 곳은 하나님 압해 올나가 잇느니라(고린도후十二〇-四) 그 락원을 옮긴 제는 에베소 四〇八-十절에 가라쳤스되 악한 사롬의 신이 가는 곳은 성경에 옮겼다 하는 말이 업느니라⁶³

둘째, 스왈런은 심판 후의 처소를 지옥에 해당되는 ‘유황불 구렁텅이’, 개조되는 지상에 세워질 ‘무궁세계’, 그리고 불현계의 ‘새예루살렘’ 등 삼계로 나누었다. ‘유황불 구렁텅이’에 대해서는 ‘류황불 붓는 구렁텅이’ 혹은 ‘불 붓는 구렁텅이’라고 칭하여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과 둘째 사망(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자들이 들어가 형벌을 받을 처소라고 했다.⁶⁴ ‘무궁세계’는 기존의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 새롭게 개조되는 복된 세계이며 이 ‘무궁세계’를 가리켜 에덴동산보다도 더욱 영광스러운 장소라고 했다.⁶⁵ 가장 복된 처소 ‘새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천성이라고 보았다.⁶⁶ 흔히 길선주의 삼계론이 독특한 신학이라고 평가하지만 이 삼계론은 그의 독창적 주장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가 평양신학교에 재학하던 1906년에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한 은사 스왈런의 아이디어에서 착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⁶⁷ 다만 세세한 해석에서 다소의 다른 견해를 보이거나 혹은 스왈런

63 W. L. Swallen, 『목시록공부』, 58-59(『계시록대요』, 67.).

64 W. L. Swallen, 『목시록공부』, 147-48(『계시록대요』, 161-62.).

65 W. L. Swallen, 『목시록공부』, 151(『계시록대요』, 165.).

66 W. L. Swallen, 『목시록공부』, 154-55(『계시록대요』, 169.).

67 길선주는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06년에 스왈런으로부터 요한계시록 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때 스왈런으로부터 삼계론의 기초를 터득했을 것이다. *The Minutes of the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Seoul, Sept. 12-17, 1906*

이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별도로 추가한 대목에서 미미한 차이를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이 삼계론은 전술했듯이 이미 정의화의 글 “黙示錄의 大概”(1918-1919년 「神學指南」에 연재)에도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5. 베어드의 “주의 직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1926)

베어드는 1926년 「神學指南」에 게재한 글 “주의 직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서 서두에 주의 재림은 신자의 소망과 안위가 된다는 점을 대전제로 선언했다.⁶⁸ 재림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모새던지 오시리니 「씨여 잇슴 거시오」”⁶⁹라고 하여 일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속한 일로 돌려 경성할 것을 촉구했다.

베어드가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세상 끝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 점과 또한 성인들과 더불어 세상에서 왕노릇할 것⁷⁰이라고 확신한 점으로 미루어 그는 분명히 전천년설의 입장을 취했다. 그가 주께서 오실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첫째부활을 의미한다. 그는 주의 재림의 형상(양태)과 관련하여 ‘인상’(리上, rapture)과 ‘출현’(出現, revelation)이라는 두 가지의 형상⁷²을 논했는데 ‘인상’은 공중재림을, ‘출현’은 가시적(可視的) 재림으로서의 지상재림을 가리킨다.

주의 직림의 두 가지 형상이 잇슴을 주의홀지니 데 일은 그 성도들을 다리고 가시기 위햐 오심은 인상(리上) Rapture이라 칭하고 둘째는 그 성도들을 다리고 노력오실 거시니 이는 출현(出現) Revelation이라 칭하느니라 현직 순식간과 인상의 두 스이에는 예언하신대로 되야 홀 일은 업느니 명령하시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6), 25-26.

68 W. M. Baird, “주의 직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 70.

69 W. M. Baird, “주의 직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 71.

70 W. M. Baird, “주의 직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 70.

71 W. M. Baird, “주의 직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 72.

72 정의화와 박형룡은 ‘인상’(리上)이라는 용어를 ‘휴거’와 동일한 의미로 보았다. 정의화, “黙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제1권 3호(1918. 10), 62. 박형룡, 『敎義神學: 來世論』(서울: 韓國基督教敎育研究院, 1983), 203. 박형룡은 ‘rapture’를 ‘현현’으로 번역하고 그리스도가 지상에 임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박형룡의 같은 문헌, 207.

기를 써여잇스라 하였도다 그러나 왕노릇하려 그 성도들과 함께 출현 곳
영광으로 강림하시기 전에는 먼저 징조가 잇스리라 인상은 혹 비밀히 될
거시오[재림 날짜를 알 수 없음-연구자 주] 출현은 모든 사람이 다 보리라⁷³

앞서 살펴본 것처럼 베어드가 번역한 브룩스의 저서 『주지림론』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 입각했고, 서문에서 브룩스를 성경을 깊이 연구한 학자로 호평한
일이며, 브룩스가 재림의 이치를 분명하게 진술했다고 평가한 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이중 재림으로 주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베어드는 분명히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견지했다.

6. 도슨의 『오는 소망』(1934, 고든 역)

도슨의 저작 『오는 소망』의 원제목은 The Hope of the Future로 장로교
선교사 고든이 번역했고 1934년 야소교장로회총회교육부에서 출판되었다. 도
슨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서 장차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대한 의지적 선언이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설정되어 있는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속한 사역임을 고백했다.⁷⁴ 그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제시된 핵심주
제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파악했으며, 모든 개개인 신자들의 미래적 복락이
이 재림의 소망에 직결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의 제목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그것이다.
묵시록 첫 장에 다음과 같은 광고의 말씀으로 시작하였다. 「불지어다 그름을
타고 강림하시리니 각인의 눈이 반드시 보리라. 이 묵시록의 중심되는 개선가
는 「세상 나라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이 되어 저가 세세에 왕노릇하
시리로다.」이다. (중략) 그러므로 전 신약성경을 통하여 보면 이 소망이 장차
나타날 큰 사건으로 우리 앞에 늘 보여줄 뿐 아니라 개인 신자의 모든 미래

73 W. M. Baird, “주의 지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 73-74.

74 W. B. Dawson, 『오는 소망』, 10-12.

복락도 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⁷⁵

도슨의 천년왕국론은 전천년설에 입각해 있다. 그는 장차 천년왕국기에는 땅을 속박한 모든 저주가 풀려 비옥한 땅으로 회복되고, 인류는 평화를 누릴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이 주께서 공의로 통치하실 때 실현될 것이라며 천년왕국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재림이 선행될 것이라고 확신했다.⁷⁶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귀인(貴人)의 비유를 들어 왕권을 얻으려고 먼 나라에 갔던 귀인을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배척했지만 귀인이 돌아와서 징벌하는 광경은 곧 천년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현상을 보여주는 전조이자 비유라고 설명했다.⁷⁷ 후천년설에 대해서는 세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흔히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그 근거로 제시하지만 도리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공중의 새는 악한 자를, 누룩은 악을 대표하기에 전혀 타당하지 못한 궤변이라고 논박했다.⁷⁸

도슨의 천년왕국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점이라면 당시 보편적 추세였던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거부하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견지했다는 점이다. 당시 종말론 관련 문헌들이 대동소이하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논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진술된 도슨의 저서는 당대 종말론 분야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슨은 재림의 표적들을 논함에 있어 그 특증(特證)들로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의 핏박에 동참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공중재림, 휴거, 공중혼인연식, 지상재림 등으로 대변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일축했다. 그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구분된 이중 재림을 부정함으로써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의 특증은 일반적으로 곤란한 시대라서 그 시대에는

75 W. B. Dawson, 『오는 소망』, 19-20. cf. 54.

76 W. B. Dawson, 『오는 소망』, 22.

77 W. B. Dawson, 『오는 소망』, 25-26.

78 W. B. Dawson, 『오는 소망』, 28-29.

전쟁, 기근, 지진, 이 늘 계속하여 이러날 것을 말씀하셨다. 거짓 그리스도가 이러나서 핍박하므로 또한 종교적 환난시기가 올 터이다. 예루살렘이 짓밟힐 터이오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을 물론하고 모도 환난을 받는 때가 될 것즉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으로 나누지 않음-연구자 주]이라 하셨다. 이 환난시기가 끝날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할 것이다.⁷⁹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시온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을 유업으로 삼아 땅 끝까지 편안하게 왕권을 수행하실 것으로 보았다.⁸⁰ 그리고 평화는 소위 세계열강들의 평화회담이나 군비축소 등과 같은 인간의 자의적 노력과 인위적 협상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로서만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⁸¹ 고든은 종말의 시기가 가까웠고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임박했다고 확신하면서도⁸² 그 시기는 알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으며⁸³ 현세에서도 진실하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권계하여⁸⁴ 현세와 내세를 한 지평에서 일원적으로 통합하여 조망했다.

III. 중국인 저술 종말론 관련 문헌들

장로교에서 소개한 중국인 저술 종말론 관련 주요문헌들 중에서는 출간된 순서에 따라 이지명의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1918), 왕좌화의 “默示錄研究”(1918년 「聖經雜誌」에 게재), 정의화의 “默示錄의 大概”(1918-1919년 「聖經雜誌」에 연재), 가옥명의 『來世論』(1931) 등을 취사 선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79 W. B. Dawson, 『오는 소망』, 41.

80 W. B. Dawson, 『오는 소망』, 23, 51.

81 W. B. Dawson, 『오는 소망』, 51.

82 W. B. Dawson, 『오는 소망』, 48, 61, 62, 63, 64.

83 W. B. Dawson, 『오는 소망』, 64.

84 W. B. Dawson, 『오는 소망』, 55.

1. 이지명의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1918, 게일 역)

중국인 이지명의 글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는 게일이 번역했으며 1918년에 『聖經雜誌』에 게재되었다. 이 문헌은 각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할 것과 현세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권계서(勸戒書) 혹은 수훈서(垂訓書)의 성격을 갖추었다. 그는 집필 목적을 “그리스도 再臨의 要旨를 잘 알아 確實히 觀念을 가지고 重大히 責任을 擔負할지이다”⁸⁵라고 강조함으로써 특히 영원세계를 사모하는 열정을 왜곡하여 현세와 내세를 단절 짓는 이원론적 사고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세의 삶에 대해 충실하게 지상에서 순례자적인 삶을 영위할 것을 피력했으며 현세와 내세를 한 지평에서 일원적으로 통합하여 조명했다.

이지명은 구미 신학에서 과학적 사고와 학술, 논리 체제 등을 도입하여 성경을 명확하고 적실하게 분석하는 것이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유익한 방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되레 재림 불가지론에 현혹당하는 등 영적 지식이 없어 재림을 의심하거나 방임주의로 전락하는 폐단에 대해서는 개탄할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당시 성경해석에 독초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던 성경고등비평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今日에 歐美의 神學家는 科學研究를 밀위여[과학연구로 미루어-연구자 주] 聖經解釋을 明白히 曉히 聖經 中 每 章節에 先代의 歷史를 參考하고 當今時勢를 들어 確實히 證據히 善하다 此 教派는 크게 有益히야 道義의 光輝가 되나 可惜히 是는 그리스도 再臨에 對히야 反對히지는 아니히지라도 靈識의 增長함이 업는 是는 無(?)라 主의 再臨을 알 수 업다 히야 疑心을 품고 (중략) 放任主義를 가질 是이오⁸⁶

또한 이지명은 재림에 대한 영적 지식의 부재와 아울러 재림에 대한 잘못된 광신적 열망을 동시에 지적하여 깊이 성찰할 것을 촉구했다. 아래 인용문에서

85 이지명,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 7.

86 이지명,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 8. ‘?’는 판독이 불가능한 한자임.

“엇던 教派는 再臨만 渴慕함으로”라고 한 것은 “再臨 ㅎ시리라 ㅎ다가 時期가 지나되”라는 후속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시한부종말론에 심취한 사례를 가리킨다. 그는 시한부종말론을 신봉하는 신자들이 무사안일한 태도를 취하여 지상에서 감당해야 할 삶을 포기하고 등한시하는 행태를 지적했으며, 이들이 재림을 학수고대하지만 결국 성취되지 않자 이를 비관하여 허무주의자들로 전락하는 신앙양태를 비판했다.

엇던 教派는 再臨만 渴慕함으로 諸般事務를 停廢 ㅎ고 物品을 典當 ㅎ며 産業을 放責 ㅎ고 且上과 相關이 업다 ㅎ야 一室에 會集 ㅎ야 每日 主의 再臨을 祈하며 ㅎ는 言이 某年某月某時에는 丁寧코 差錯업시 再臨 ㅎ시리라 ㅎ다가 時期가 지나되 聲跡이 杳然함으로 其 信徒들노 疑(?)를 發케 ㅎ니⁸⁷

위의 인용문에 진술되어 있듯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심취하여 일반사무를 방기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사람들마저 속출하는 현상은 비단 과거사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한국기독교는 30년 전 다미선교회의 시한부종말론⁸⁸ 사태를 통해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절감한 바 있다. 당시 한국기독교는 1992년 10월 28일 시한부 종말론과 휴거의 망상에 빠진 신자들로 인해 학생들의 자퇴, 직장인들의 퇴직, 재산 헌납, 낙태수술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체험했다.

2. 왕좌화의 “默示錄研究”(1918, 게일 역)

중국인 왕좌화의 “默示錄研究”는 「聖經雜誌」의 편집인이었던 게일의 노력으로 1918년 2월 초판부터 번역되어 실린 글인데 종말론 관련 문헌으로서는 최초로 신학저널에 연재 형식을 통해 소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 정의화의 “默示錄大概” 역시 같은 해에 평양신학교 기관지 「神學指南」에 연재되었으나

87 이지명,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 8. ‘?’는 판독이 불가능한 한자임.

88 이장림의 시한부종말론에 대해서는 다음 저서를 참조할 것. 이장림, 『1992년의 열풍』(서울: 광천출판사, 1991), 41-51.

왕좌화의 “默示錄研究” 보다는 8개월이 늦은 10월부터 게재되었다.

왕좌화는 “默示錄은 주의 날 곧 예수 再臨에 屬한 冊이라”⁸⁹라고 하여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재림으로 보았으며 특별히 “默示錄은 모든 先知書에 말씀한 주 예수의 再臨을 드러내어 밝힌 거시니 (중략) 요한의 默示는 주 예수의 再臨을 ㄹㄹ치신 全書로다”⁹⁰라고 하여 요한계시록이 신약의 선지서로서 구약과 유기적 상응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히 구약성경 다니엘과 관련해서는 다니엘이 계시로 목격했던 것도 다니엘 자신에게 관계되었던 일이 아니라 말세에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될 미래사였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예언(구약)-성취(末世)’의 유기적 도식을 도출했다.

舊約 다니엘의 본 것은 다니엘의게 關係가 아니오 末世에 關係인 故로 이 말을 緘封하야 末期를 苦待하라 ㄹ 거시나 新約 요한의 본 거슨 모든 信徒의 關係됨으로 하나님이 特別히 요한을 命하야 이 冊의 豫言을 緘封치 말나 ㄹ은 其 日[재림과 관련된 말일-연구자 주]이 갓가옴이니라⁹¹

또한 주목해야 할 점으로서 왕좌화가 숙고하여 제시한 논점은 요한계시록을 단순히 역사신학 입장에서 ‘교회사기’(教會史記)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의신학의 의미를 부여하여 ‘주의 날’(主日)에 관계된 책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안이다. 왕좌화는 이 논점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들이 ‘已往 目觀한 일’, ‘現今 있는 일’⁹²이라 하여 일면 교회사기적인 속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이 재림에 관련된 계시를 주일에 받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 요한계시록을 단지 교회사기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주일에 관계된 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⁹³ 그는 “默示錄은 주의 날에 關係된 말씀이니 주 예수의 再臨을 ㄹㄹ치신 말씀”이라고 확정했다.

89 왕좌화, “默示錄研究”, 『聖經雜誌』 제1권 1호(1918. 2), 61. 그는 요한계시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신 일을 의론(議論)하신 책이라고 하여 재림에 초점을 맞추었다. 같은 문헌 64쪽.

90 왕좌화, “默示錄研究”, 61.

91 왕좌화, “默示錄研究”, 61.

92 왕좌화, “默示錄研究”, 65.

93 왕좌화, “默示錄研究”, 64.

그리스도教 信者된 자는 聖經을 參考할 새에 默示錄의 엇더흔 뜻을 不可不 알아야 ㅎ것거늘 (중략) 默示錄을 講解 ㅎ는 者가 兩派가 잇스니 一派의 말은 默示錄은 教會史記니 요한이 冊 지을 時부터 主 예수 再臨時 곳 모든 對敵을 滅 ㅎ 時까지라 ㅎ고 一派의 말은 默示錄은 主의 날에 關係된 말습이니 主 예수의 再臨을 ㄱ락치신 말습이라 ㅎ느니라”⁹⁴

이 저서의 전체적인 윤곽은 내용상으로 공중재림과 휴거, 환난의 날과 이스라엘의 연단,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천년왕국, 백보좌 심판, 영원세계의 순으로 전개되어 있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랐다.

一은 主 예수가 空中再臨 ㅎ샤 聖徒를 迎接 ㅎ야 놀나갈 일올라갈 일-연구자 주를 말습 ㅎ야 (중략) 二는 聖徒가 空中에 迎接 ㅎ을 ㅅ은 後에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煉 ㅎ시리니 (중략) 三은 이스라엘이 煉 ㅎ을 ㅅ은 後에 하느님이 다시 福을 주시리라 (중략) 四는 敵그리스도가 末世에 니러나리니 (중략) 五는 主 예수가 平安 ㅎ 王國을 세우실 새에 一千年 동안 萬國왕이 되시리니 (중략) 最後에 흰 寶座의 審判이 잇스리라 (중략) 흰 寶座에서 審判 ㅎ신 後에 新天新地 곳 새예루살렘 사름의게 나타나실 일을 議論 ㅎ엿느니라⁹⁵

특별히 주목할 만한 논점으로서는 최후심판 후에 도래할 영원세계와 관련하여 ‘新天新地 곳 새예루살렘 사름의게 나타나실 일’이라고 기술하여 신천신지와 새예루살렘을 동일시했으며 완전하게 질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 지상에 천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앞서 살펴본 브룩스의 『주지림론』에 나타난 총괄갱신의 의미를 함축한다.

3. 정의화의 “默示錄의 大概”(1918-19)

94 왕좌화, “默示錄研究”, 60.

95 왕좌화, “默示錄研究”, 62-65.

중국인 정의화의 “默示錄의 大概”는 평양신학교 기관지인 「神學指南」이 처음 발행되던 해인 1918년 10월 제1권 3호로부터 1919년 10월 제2권 3호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연재되었다. 이 글은 「神學指南」에 최초로 연재된 종말론 관련 문헌이었던 만큼 당시 장로교에 속한 신학생들이 크게 주목한 저작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의화는 이 글에서 ‘主 예수의 再臨’, ‘教會의 豫備 天國’, ‘主의 日은 卽 審判日’, ‘世界末日 審判時’, ‘善惡의 大戰爭’, ‘世界最末에 大災難’, ‘將來에 得 喜 大喜樂’ 등 모두 일곱 가지의 논점들을 순차적으로 전개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개요를 논함에 있어 주의 재림은 ‘信徒의게 最히 緊要 題目’⁹⁶이며 ‘默示錄書 中에 最히 큰 題目’⁹⁷이라 하여 재림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라고 밝혔다. 그는 아예 “新約聖經 中에 要緊 問題는 卽 我 主 예수 그리스도의 再臨이라”⁹⁸라고 명시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인식했으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의의를 논하는 대목에서 재림이 곧 신자들의 희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⁹⁹

정의화는 ‘第一論說 主 예수의 再臨’에서 ‘空中으로 降臨’, ‘引上’(휴거), ‘世界 大審判의 災難을 脫出’, ‘羔羊의 婚姻日期’, ‘主와 함께 臨’(지상재림) 등을 논증함으로써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했다.¹⁰⁰ 독특한 내용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144,000명의 숫자 중에 단지파가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단지파가 최악의 종자를 심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 일에 연유하지만 장래 천국이 지상에 이루어질 때 단지파 역시 일부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¹⁰¹

정의화는 현세의 직업에 대해 관심을 고취하여 각별히 각자에게 주어질 소명 의식을 성찰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주의 재림날짜는 알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재림을 열망한 나머지 직업을 포기하거나 현세의 삶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을

96 정의화,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1권 3호(1918. 10), 57.

97 정의화,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1권 3호(1918. 10), 58.

98 정의화, “主再臨時에 聖徒의 先站得救論”, 18.

99 정의화,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1권 3호(1918. 10), 58.

100 정의화,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1권 3호(1918. 10), 62-63.

101 정의화,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제1권 4호(1919. 1), 56-57.

비판함으로써¹⁰² 블랙스톤이 『예수의 직립』에서, 이지명이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에서 역설했던 것처럼 현세와 내세를 단절 짓는 이원론적 사고를 경계했다.

영원세계와 관련하여 정의화의 독특한 논점은 ‘千年平安國’(천년왕국)¹⁰³ 후에 임할 세계가 삼계라고 본 점이다. 그는 하늘로부터 하강하여 땅에 근접하여 위치할 ‘천상의 新예루살렘’과 동시에 땅 위에 실현될 ‘지상의 예루살렘’을 논했다.

本書[요한계시록-연구자 주] 二十一章을 查察^한즉 地上天國과 新예루살렘을 言^함이 있스니 所謂 新天新地는 如何^한 거신지 余도 斷定치 모스나[못하나-연구자 주] 但 原文을 查察^한면 곳 天과 地가 接近^한여지는 뜻이라 新예루살렘이 天으로부터 내려와 地와 接近^한음을 表明^한이니 에스겔 四十章으로 四十八章까지 보면 新예루살렘이 시온山上에 잇음을 論^한 거시니 是로 由^한야 天上에 新예루살렘이 잇음을 可히 알지니 能히 吾儕[우리들-연구자 주]로 行^여곰 歡喜舞蹈케 行^는도다¹⁰⁴

이로써 정의화는 영원세계에 대해 ‘천상의 新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 불구덩이 지옥인 ‘火坑’¹⁰⁵ 등 삼계를 주장한다. 이 세 처소는 스왈런이 『묵시록 공부』(1922)와 『계시록대요』(1936)에서 설명한 삼계론과도 매우 흡사한 궤적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삼계론은 길선주가 논한 ‘새예루살렘’, ‘無窮安息世界’, ‘硫黃불 地獄’의 삼계론과도 일치하며 정의화가 주장한 ‘천상의 新예루살렘’은 길선주가 주장한 ‘새예루살렘’에, ‘지상의 예루살렘’은 ‘無窮安息世界’에, ‘火坑’은 ‘硫黃불 地獄’에 해당된다.¹⁰⁶ 정의화는 ‘지상의 예루

102 정의화, “默示錄의 大槪”, 『神學指南』 제1권 4호 (1919. 1), 57.

103 정의화는 ‘천년왕국’을 ‘千年平安國’이라 했다. 정의화, “默示錄의 大槪”, 『神學指南』 제2권 3호 (1919. 10), 61.

104 정의화, “默示錄의 大槪”, 『神學指南』 제2권 3호(1919. 10), 51-52.

105 정의화는 지옥을 ‘火坑’으로 별칭했다. 정의화, “默示錄의 大槪”, 『神學指南』 제2권 3호 (1919. 10), 51.

106 길선주의 삼계론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길선주, “末世學(十四)”, 『信仰生活』 제5권 10호(1936. 11), 11-12.

살냄'은 부활한 유대인들이 살면서 세계를 관할할 처소이고 '천상의 예루살렘'은 주의 성도들이 거주할 장소이며 두 세계는 가까운 거리라 서로 왕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地上의 예루살렘은 各國으로 더브리 無異 ㅎ야 유대인이 復活 ㅎ을 因 ㅎ야
 地上의 예루살렘에 巨 ㅎ야 世界各國을 管轄 ㅎ 거슬 宜當히 알 거시오 天上
 예루살렘인즉 主 예수 그리스도의 聖徒들이 居 ㅎ지니 不過 天地가 接近 ㅎ야
 上下의 往來 ㅎ이 잇슬 싸름이오¹⁰⁷

정의화의 글은 「神學指南」에 연재된 “默示錄의 大概” 외에도 두 편의 글이 1920년과 1921년에 게일에 의해 번역되어 「聖經雜誌」에 별도로 게재되었다. “主再臨時에 聖徒의 先站得救論”(1920년)에서는 “末時의 最大災難[지상에서의 칠년대환난기-연구자 주]에 니르러서는 教會가 其 內에 잇지 아니리니 信者는 眞道를 직혀 將來를 保護 ㅎ야 極大 ㅎ 榮耀와 快樂을 엇음이 엇지 조치 아니리오”¹⁰⁸라고 하여 재림을 소망하는 신자들이 지상에서 솔선해야 할 참된 도리와 본분을 강조했다. 그는 “예수의 再臨과 教會의 關係”(1921년)를 통해서도 역시 칠년대환난기에 교회에 받게 될 구원을 논하는 대목에서 “흠고 主의 道를 직히며 此日[재림의 날-연구자 주]을 기디려 希望의 目的을 到達 ㅎ리”¹⁰⁹라고 격려하여 항상 인내하며 주의 말씀을 실천할 것을 권고했다.

4. 가옥명의 『來世論』(1931, 정재면 역)

중국인 가옥명의 원저 『來世論』은 정재면이 번역하여 1931년 평양장로회신학교에서 출판되었다. 이 저서에는 보편적으로 구사되던 ‘종말’, ‘말세’ 등의 단어 대신 별도로 ‘내세’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저서명을 『來世論』이라 명명했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박형룡은 종말론 문헌들 가운데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107 정의화,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제2권 3호(1919. 10), 54.

108 정의화, “主再臨時에 聖徒의 先站得救論”, 22.

109 정의화, “예수의 再臨과 教會의 關係”, 7-8.

종말사상에 우려를 표하여 영구한 내세의 영속(永續)과 출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교의신학 제7권의 명칭을 ‘종말론’ 대신 ‘내세론’(來世論)으로 확정했다.¹¹⁰ 본 연구자는 가옥명이 저서명을 『來世論』으로 정한 의도 역시 이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는 저서 제1장의 주제를 ‘來世의 必有’라고 명명하여 불가시적인 내세의 실재를 논증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과학주의를 배격하고 무형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와 감응(感應)하는 영혼, 영혼의 영원성, 하늘에 속한 영혼의 의미 등 불가시적 이데아의 영역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現今 科學은 다만 目靚耳聞하며 鼻奧手觸[경험주의와 실증주의 차원-연구자 주할 만한 것을 말하고 그러치 않은 것은 말할 것이 없다 하나니 이는 有形的 世界를 承認하고 無形的 世界를 否認함이라 換言하면 이 말은 卽 靈의 世界를 否認하고 샤라서 사람의 靈까지 否認함이니 이는 卽 形形色色한 天然界 外에 오히려 不可思議한 靈世界가 잇슴을 不知함이오 또한 우리 身體가 物質界와 接觸하고 우리의 靈魂이 靈世界로 더브러 感應함이 잇슴을 故意로 承認치 아니함이라 (중략) 우리의 眞我的 本體는 永遠히 存在한 靈魂 이니 (중략) 靈魂은 하늘에 屬함으로 決코 血肉으로 더브러 갖치 도라가며 消滅되지 아니할지라 觀念이 이와 갓흔즉 엇지 來世의 觀念이 업스리오¹¹¹

가옥명의 천년왕국론은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의인의 부활과 휴거,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급, 어린양 혼인연석, 지상의 대환난, 지상 백성들 심판, 사탄 감금, 환난기 순교자들의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세대주의 전천년 설의 구도를 보여준다.¹¹² 그는 재림장소와 관련하여 “예수께서 올라가실 때에 임의 감람山 山頂에서 올라가섯스즉 再臨하실 때도 또한 감람山에 설 것이라”¹¹³라고 하여 감람산이 재림의 처소가 될 것으로 보았다.

가옥명은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상호 대조하여 평화로운 세계가 도래할

110 박형룡, 『教義神學: 來世論』, 45.

111 가옥명, 『來世論』, 1-2.

112 가옥명, 『來世論』, 34, 49-51.

113 가옥명, 『來世論』, 33.

것이라고 낙관하는 후천년설을 일축하고 전천년설의 필연성을 변증했다. 그는 그 근거로서 천년왕국 전에 적그리스도를 응징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의 부패, 재림 전 대환난, 성도들의 타락상, 세상의 분요, 재림 시 성도들의 부활, 그리스도의 왕권, 오직 재림을 소망할 것을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교훈, 성경이 세상의 개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¹¹⁴ 그가 논한 영원세계는 이중적 처소들로서 천국과 지옥으로 압축된다.

「하늘이 큰 소리로 썩어나가고 體質이 쓰거운 불에 푸러지고 (중략)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義가 거기 屈하리라」(벧후3:10-13) 하였스니 대개 불살은 다 함은 滅함이 아니오 實노 낡은 것을 불살오아 다시 새로운 것을 準備함으로 新天新地를 化成함이니라¹¹⁵

우리가 聖經를 考察하면 眞實노 우리의 居生하는 世界가 반다시 불타버린다 (벧후3:10) 하였스니 다만 불탄다 함은 불노 化함인지 或 불노 씻씀인지 이에 對하야 原文 文義로 보면 불노 化하야 消失됨을 뜻함과 갓흔 배같은 바-연구자 주) 대개 神의 不盡한 權能으로 말하면 亦은 불의 鍊鍛을 지남으로 再造하야 (중략) 煥然一新케 할 수도 업는 것이 아니니라¹¹⁶

불이 썩이지 아니하야 火谷을 일우엇스니 聖經이 이를 地獄이라 하였나니라 (2)無抵抗이니(묵9:1 2 11) (3)'外邊黑暗이니(마8:12, 二十二) (4)無窮한 暗黑이니(벧후2:17) (5)불구덩이니(묵20:10 15, 二十一-8) 그곳에는 불과 硫黃이 잇서 苦難을 밧으리니¹¹⁷

가옥명은 위의 인용문에 진술한 것처럼 영원세계를 신천신지의 천국과 지옥의 두 처소로 대별했는데, 천국은 현존하는 세계가 사라지고 새로운 천국으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 세계가 질적으로 새롭게 개조되는 차원이라고

114 가옥명, 『來世論』, 36-39.

115 가옥명, 『來世論』, 87.

116 가옥명, 『來世論』, 94-95.

117 가옥명, 『來世論』, 96.

보았다. 그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는 현 세계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의 낡은 것을 불살라 새롭게 재조(再造)함으로써 환연일신(煥然一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했다.¹¹⁸ 그리고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야 할 처소를 ‘地獄’ ‘火谷’(불계곡), ‘無抵抗’, ‘外邊黑暗’, ‘無窮한 暗黑’, ‘불구덩이’라는 단어들로 묘사했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해방 전 장로교 선교사들의 주요 저서와 번역서를 중심으로 한국에 소개된 종말론 관련 문헌들을 취사 선정하여 총괄적으로 고찰했으며 요한계시록의 핵심주제, 천년왕국 직전에 전개되는 역사, 천년왕국론에 관한 관점, 최후심판과 그 이후의 영원세계, 독특한 논점 등에 역점을 두어 살폈다. 분석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괄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로 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당시 천년왕국론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지향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천년왕국이 전개될 수 있는 필연적 대전제가 된다는 점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정의화는 “默示錄의 大概”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아예 신약성경 전체를 관철하는 핵심적인 주제라고 강조했다. 정도이다.

둘째, 천년왕국론에 있어서는 공중재림과 휴거, 칠년대환난, 지상재림과 심판, 천년왕국, 마귀해방과 최후심판, 영원세계 순서로 전개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주류를 이룬다. 블랙스톤의 『예수의 지림』, 왕좌화의 『默示錄研究』, 김상준의 『默示錄講義』, 정의화의 『默示錄의 大概』, 브룩스의 『주지림론』, 스왈런의 『묵시록공부』와 『계시록대요』, 베어드의 “주의 지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 가옥

118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의 내용에 대해 세상의 소멸인가 갱신인가에 관한 논증 및 카이퍼(A. Kuyper)의 견해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송영목, “종말론과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 베드로후서 3:10-13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제27호(2021), 78-89; 송영목,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의 재림 이해 및 평가”, 『갱신과 부흥』 제29호(2022), 161-62.

명의 『來世論』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유의할 점으로서 스코필드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언약신학을 부정하지만 해방 전 한국기독교에 소개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언약신학에 기초하여 논증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다만 브룩스는 『쥬지립론』에서 일곱 세대는 모두 사람의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셋째, 모든 저자들이 세대주의 전천년설만을 견지했던 것은 아니며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을 취한 도슨의 『오는 소망』, 무천년설의 입장을 취한 민준호 역의 『묵시록주석』(클락 등이 공역한 『묵시록주석』과 같은 책) 등은 세대주의 전천년설과는 엄격하게 거리를 두었다. 무천년설을 채택한 민준호 역의 『묵시록주석』은 이른 시기인 1913년 10월에, 역사적 전천년설을 수용한 도슨의 『오는 소망』은 다른 문헌들에 비해 다소 늦은 시기인 1934년에 발표되었다.

넷째, 후천년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취했다. 그 근거로서 세상이 나아지기보다는 점차 부패해간다는 점, 신자들이 재림을 등한시하여 열정적 신앙을 상실하는 병폐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 말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발흥할 것이라는 점, 그리스도의 왕권 등을 제시했다. 블랙스톤의 『예수의 직립』, 브룩스의 『쥬지립론』, 도슨의 『오는 소망』, 가옥명의 『來世論』 등에 이 논점들이 부각되었다. 이는 평화의 세계는 결코 사람이 성취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주권과 통치로서만 가능하다는 고백을 담는다.

다섯째, 시한부 재림론에 심취하여 지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행태를 비판하고 지상과 천상을 한 지평 위에서 일원적으로 통합한 노력도 두드러진다. 모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 하지만 재림이 성취되기까지 순례자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지상의 생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으며 이 논증 과정에서 소명 의식을 부각시켰다. 이 교훈에 초점을 둔 문헌으로는 블랙스톤의 『예수의 직립』, 이지명의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 정의화의 “默示錄의 大概”, 도슨의 『오는 소망』 등이 있다.

여섯째, 영원세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지구 교체설이 아닌 개조설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상과 천상을 이원화하지 않고 한 지평에서 통합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안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민준호가 번역한 『묵시록주석』(클라 등이 공역한 『묵시록주석』과 같은 책)에서는 개조설이 아닌 교체설을 주장한다. 한편 개조설의 입장을 취하지만 동시에 불현계의 새예루살렘을 추가하여 독특하게 삼계론을 논한 문헌들로는 스왈런의 『묵시록공부』와 『계시록대요』, 정의화의 “黙示錄의 大概” 등이 있으며 이 사상은 길선주와 김정현 등의 삼계론에 영향을 미쳤다.

현재 한국기독교는 천년왕국과 관련하여 무천년설과 아울러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등 삼중적 흐름을 보여준다. 본 연구자는 사적으로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며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거부하지만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는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 논고를 마무리하며 한국그리스도인들이 종말론과 관련하여 추구해야 할 과제들을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해방 전 종말사상들을 통해 한국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성찰해야 할 점들이 있다. 시한부 종말론이 초래하는 사회적 파장과 허무주의, 지나치게 교단의 정체성을 중시하는 교조주의적인 태도, 지상과 천상의 삶을 단절로 보아 이원론적으로 인식하는 사고 등이다. 특별히 지상과 천상의 삶의 이원론적 구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명의식과 직업윤리에 투철해야 하고, 지상과 천상을 일원적으로 한 지평 위에 통합하여 지상에서의 삶을 성실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사상을 고취해주어야 하며, 각별히 신학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교의신학 종말론 분야를 깊이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경건한 신앙심을 고양하는 역동적 동인이 될 수 있다. 본 논문 ‘들어가는 말’에서 언급했듯이 해방 전 종말사상이 활성화된 배경에는 한민족의 시대적 암울한 정황과 질곡이 반영되어 있다. 깊이 숙고할 점으로서,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제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여 과학주의, 물질만능주의, 맘몬이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현세의 삶에 집착하여 몰입함으로써 점차 종말사상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참고문헌]

- Baird, W. M. “주의 직림에 대한 성경의 교훈”. 『神學指南』 제8권 1호(1926), 70-74.
- _____. “주직림론서”. J. H. Brooks. *Till He Come*. W. M. Baird 역. 『주직림론』.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1(‘서문’).
- Blackstone, W. E. *Jesus is Coming*, J. S. Gale 역. 『예수의 직림』.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13.
- Brooks, J. H. *Till He Come*, W. M. Baird 역. 『주직림론』.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 Dawson, W. B. *The Hope of the Future*. H. J. Gordon 역. 『오는 소망』. 京城: 耶蘇教長老會總會教育部, 1934.
- Irenaeus. “Against Heresies”. *Early Christian Fathers*, Translated and Edited by Cyril C. Richardson.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3), 343-97.
- Scofield, Cyrus I. *The Scofield Bible Correspondence Course*. Chicago: The Moody Bible Institute, 1907.
- Swallen, W. L. 『계시록대요』.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36.
- _____. 『묵시록공부』.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 Wangerin, T. S. 『默示錄研究』. 京城: 時兆社, 1933.
- The Minutes of the Fourteenth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Presbyterian Missions in Korea*, Seoul, Sept. 12-17, 1906.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6.
- 가옥명. 『來世論』. 鄭載冕 역. 『來世論』. 平壤: 長老會神學校, 1931.
- 길선주. “末世學(十四)”. 『信仰生活』 제5권 10호(1936. 11), 8-12.
- 김상준. 『默示錄講義』. 平壤: 基督書院, 1918.
- 김정현. 『末世論』. 京城: 彰文社, 1928.
- _____. 『末世論』. 京城: 講臺社, 1935.
- 나채운. “우리 민족의 심층적 의식구조에 관한 한 고찰”.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연구회 편. 『그리스도교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1, 141-73.

- 리진호. 『한국성서 백년사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박용규. 『韓國長老教思想史』.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99.
- 박응규. “일제하 한국교회의 종말론 형성에 관한 연구”. 『역사신학논총』 제2집(2000), 176-98.
- 박형룡. 『敎義神學: 來世論』. 서울: 韓國基督教教育研究院, 1983.
- 송영목.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 그리고 벤자민 워필드의 재림 이해 및 평가”. 『갱신과 부흥』 제29호(2022), 155-88.
- _____. “종말론과 크리스천의 환경 책무: 베드로후서 3:10-13을 중심으로”. 『갱신과 부흥』 제27권(2021), 65-96.
- 안수강. 『길선주의 말세론 연구』.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오지원. “김교신의 종말론 연구”. 『역사신학논총』 제32집(2018), 35-76.
- 유동식. “한국문화와 신학사상”. 강원용 편. 『한국신학의 뿌리』. 서울: 문학예술사, 1985, 261-79.
- 이만열. 『韓國基督教文化運動史』.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_____. “韓國基督教의 末世意識과 千年王國思想”. 哲學宗敎研究室研究部 編. 『現代韓國宗教의 歷史 理解』.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 이상웅. “평양 장로회신학교의 종말론 전통”. 『한국개혁신학』 제70권(2021), 218-64.
- _____. “해방 이전 한국 장로교 목사들의 종말론”. 『조직신학』 제37권(2021), 94-122.
- 이장림. 『1992년의 열풍』. 서울: 광천출판사, 1991.
- 이지명. “그리스도再臨과 現代信徒”. 『聖經雜誌』 제1권 6호(1918), 6-9.
- 이창직. “주의 직림서”. W. E. Blackstone. 『예수의 직림』. 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13, 1-2(‘서문’).
- 정의화.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제1권 3호(1918. 10), 57-71.
- _____. “默示錄의 大概”. 『神學指南』 제2권 3호(1919. 10), 48-68.
- _____. “예수의 再臨과 教會의 關係”. 『聖經雜誌』 제4권 2호(1921), 1-8.
- _____. “主再臨時에 聖徒의 先站得救論”. 『聖經雜誌』 제3권 6호(1920), 18-22.
-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말세학’의 한국신학적 특징”. 『신학과 문화』 제16집(2007), 297-323.

홍중숙. 『默示錄釋義』.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13.

『默示錄研究綱目』. 李時和 역. 平原: 義明學校神學科, 1930. 저자 미상.

『묵시록주석』. 민준호 역. 京城: 東洋書院, 1913. 저자 미상.

『묵시록주석』. C. A. Clark 외 2인 공역.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2. 저자 미상.

[Abstract]

A Study on Eschatological Literatures Introduced to Korea Before Liberation: Focused on the Works and Translations of the Presbyterian Missionaries

Su Kang Ahn

(Baekseok University, Adjunct Professor, Historical Theology)

This research aims to study eschatological literatures introduced to Korea before liberation, focusing on the works and translations of the presbyterian missionaries. The author considers the important thoughts and points revealed in eschatological literatures as follows. Firstly, the Western eschatological writings of W. E. Blackstone, J. H. Brooks, W. L. Swallen, W. M. Baird, W. B. Dawson are chosen and summarized the views of eschatology such as the core themes of Revelation, the previous history of the millennium, the various views of the millennial kingdom, the last judgment and eternal world, unique arguments, and so forth. Secondly, in the same manner as mentioned above, the Chinese eschatological writings of Lee Ji Myeong, Wang Jwa Hwa, Jeong Eui Hwa, Ga Ok Myeong are chosen and summarized the views of eschatology such as the purpose of Revelation, the previous history of the millennium, the various views of the millennial kingdom, the last judgment and eternal world, unique arguments, and so forth. Thirdly, the author proposes practical lessons to today's Christians on the basis of the content of this research such as efforts for unified integration of this world and the next, sense of vocation, Christian practical ethics, thorough education on

biblical eschatology, and so on. In addition, the author suggests future extensions of this research into other eschatological thoughts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such as denominational eschatology, eschatology of Korean ministers, eschatological indigenization, views of three worlds, periodic background and apocalypticis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illenarianism, and so on.

Key Words: Eschatology, Presbyterian Missionaries, The Book of Revelation, The Second Coming of Christ, The Millennium, Christian Life

